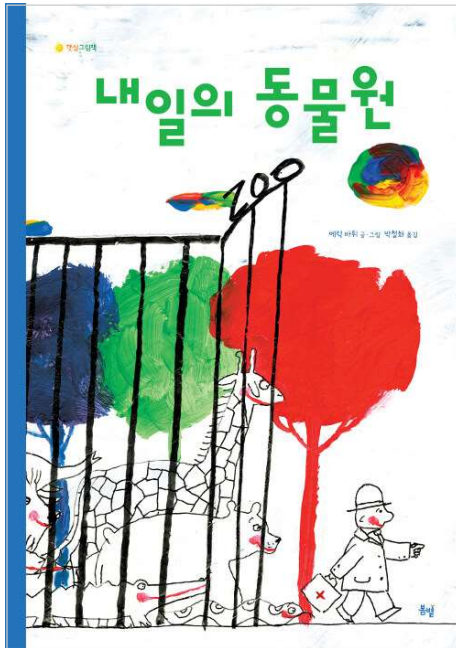


# 내일의 동물원



에릭 바튀 글, 그림 박철화 옮김

지구는 어느 한 종이 다른 종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다. 모든 생명들이 자유롭게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내일의 세상은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주제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동물권 보호하기
권장 차시	4차시
대상 학년	3~4학년
관련 주제어	환경, 생명, 공존, 동물권

교육 과정 연계	<b>국어</b>
	[4국05-0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야기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b>도덕</b>
	[4도04-01]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b>미술</b>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작성	창원 하북초등학교 조소영 선생님

##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모든 동물들이 자유롭게 행복한 내일의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

에릭 바튀의 그림책 『내일의 동물원』은 현재의 터전에서는 타고난 생명으로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동물들이 꿈꾸는 내일의 세상에 대한 희망을 담은 작품이다.

수 의사 책은 자신이 동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치료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습득한 의학 지식으로는 동물들의 아픔과 슬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수 의사 책은 큰 결심을 한다.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동물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것!

관리인은 동물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지만, 동물들에게는 그동안 동물원이 얼마나 불편하고, 외롭고, 행복하지 못한 곳이었는지를 새삼 알게 된다. 관리인은 새로운 고민을 시작한다. 어떻게 해야 동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동물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한편, 동물들을 고향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먼 길을 떠났지만 서식지가 더는 온전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수 의사 책은 그래도 실망하지 않는다. 동물들과 함께 작은 섬에 머무르며 또 다른 계획을 모색한다. 그 계획은 이 세상을 완전 새로운 곳으로 만들어 동물들이 살아가게 하겠다는 희망에서 출발한다.

에릭 바튀의 야생에서 금방이라도 퍼 올린 듯 생명력 넘치는 색감은 본래 살던 터전을 잃은 동물들에게 고향과 닮은 자연의 색감을 되돌려주는 듯한 감동을 선사한다. 더불어 화려한 원색을 각 장면마다 배치해 강렬한 인상까지 남긴다.

## ■ 학습 목표

-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림책을 읽고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동물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 동물권을 보장하는 내일의 동물원의 모습을 구상하여 나타낼 수 있다.

## ■ 수업 준비

누구나 한 번쯤 동물원에 가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을 살펴보며 즐거움을 느끼고, 궁금증을 해소하며 추억을 쌓는 공간. 하지만 철장 안에 갇힌 동물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 『내일의 동물원』은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해보고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 나누기 좋은 책이다. 더불어 인간에 의한 환경파괴와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서식지를 잃어가는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려면 우리가 어떤 인식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까닭을 책을 읽으며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실천해보고자 한다.

**수업 준비물** 도화지, 메모지, 색연필, 사인펜

##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b>마음 열기</b> - ‘동물원에 가면’ 놀이하기 <b>책과 만나기</b> - 표지 살펴보며 생각 나누기 - 책 내용 예상하기	1차시
읽는 중	<b>함께 책 읽기</b> - 책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이어질 장면 예상하기 - 그림 읽기	1차시
읽은 후	<b>우리가 만드는 내일의 동물원</b> - 동물권 알아보기(조사학습) - 내일의 동물원 소개하기	2차시

## 읽기 전

### 1. 마음 열기

#### ■ ‘동물원에 가면’ 놀이하기

- 여러분은 동물원에 가 본 적이 있나요?
- 동물원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 동물원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면’ 놀이를 해 봅시다.  
동물원에서 본 동물과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동물원에 있는 물건을 모두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순서가 되면 앞 차례 친구들이 말한 것을 잘 기억해서 친구가 말한 것을 순서대로 말한 뒤에 자기 것을 덧붙여서 말하는 놀이입니다.  
예)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기린도 있고.’

### 2. 책과 만나기

#### ■ 표지 살펴보며 생각 나누기

-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에릭 바튀 작가의 『내일의 동물원』입니다.
- 앞, 뒤표지를 펼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동물원이 보여요.  
동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나무가 있어요.  
동물들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요.
- 동물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 사람을 따라 동물원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 동물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동물원 주인 같아요.  
    듣고 있는 가방을 보니 수의사 같아요.
- 동물들의 표정은 어떠한가요?  
예)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 표지에 그려진 그림이나 색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 아이들이 그린 그림 같아요.  
    색깔이 많이 없는데 강렬한 느낌이 들어요.
- 책 표지를 넘겨서 면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기린이 한 마리 있어요.  
    동물원 담이 보여요. 문이 있고 열쇠도 있어요.
- 면지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기린이 동물원 안에 갇혀서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열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아요.
- 속표지에 영양이 그려져 있어요. 영양은 어떤 상황에 있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영양이 철창 안에 갇혀 있어요.  
    표정이 슬퍼 보여요.  
    머리 위에 그려진 그림을 보니 들판을 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 ■ 책 내용 예상하기

- 표지, 면지, 속표지를 모두 살펴보니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나요?  
예)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아파서 수의사가 고쳐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탈출하는 이야기 같아요.

## 읽는 중

### 1. 함께 책 읽기

#### ■ 책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이야기에 등장한 인물은 누가 있나요?  
예) 수의사 잭이 나와요.  
    동물원 입구에 관리인이 있어요.
- 수의사 잭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나요?  
예) 동물들의 생각을 읽을 줄 알아요.
- 보아뱀과 코끼리가 동물원에 갇혀 있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동물들이 각각 철창 안에 갇혀 있어요.  
    배경이 파란색이에요.  
    초록색 생각 풍선에 초원이 그려져 있어요.
- 보아뱀과 코끼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예) 초원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Tip 그림책 읽는 방법: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배경색과 하늘에 그려진 해와 구름의 색이 달라진다. 어떤 색들이 나오는지, 이 색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추측해 보도록 안내한다. 또한 동물들 위에 그려진 생각 풍선에는 동물들이 원하는 것이 나와 있다. 교사가 그림책을 읽을 때 생각 풍선 안에 그려진 그림을 잘 살펴보도록 안내한다. 교사가 글을 읽기 전에 생각 풍선을 함께 살펴보며 아이들에게 동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다.

-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증상을 보며 책은 무슨 생각을 했나요?

예) 약이나 주사, 물리치료로도 고칠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 ■ 이어질 장면 예상하기

- 동물들을 잘 치료해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속상했던 책은 아주 기발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해결책은 하나뿐이야.’라고 말한 책이 어떤 생각을 떠올렸는지 상상해서 말풍선을 채워봅시다.

예) 이제 동물들을 풀어 주어야겠어./동물들에게 자유를 주자./동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철장이 아닌 풀도 있고 태양도 볼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들어주자.



#### ■ 그림 읽기

- 책은 동물들을 데리고 동물원을 나갑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동물들의 색깔이 없어졌어요.

동물들을 선으로만 그려졌어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달이 무지개색으로 변했어요.

- 왜 동물들을 선으로만 그렸을까요?

예) 실제로 동물원을 나간 게 아니라 책이 상상한 것이어서 선으로 그린 것 같아요.

동물원을 떠나 서식지를 찾아가는 순간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 달과 구름의 색은 왜 무지개색으로 그렸을까요?

예) 동물들이 동물원을 떠나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희망을 무지개색으로 나타낸 것 같아요.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낸 것 같아요.

- 책은 동물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나요?

예) 정글, 사바나 들판, 극지방, 아프리카의 강, 침엽수림 지대를 찾아갔어요.

동물들이 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동물들이 원래 살던 서식지로 갔어요.

- 각 동물의 서식지를 찾아간 장면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찾아간 장소마다 배경색이 달라요.

해와 구름의 색도 달라져요.

동물들의 발자국 색도 달라져요.

- 동물들의 서식지를 어떤 색깔로 나타내었는지 찾아봅시다.

예)

동물	표현된 색	서식지
보아뱀, 코끼리	초록색	정글
사자, 기린	노란색	사바나 들판
펭귄, 북극곰	파란색	극지방
하마, 악어	빨간색	아프리카

- 서식지를 나타낸 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정글은 나무가 많으니까 초록색으로 그린 것 같아요.

사바나 들판은 사막처럼 흙이 많아서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극지방은 파란색으로 그려서 차가운 느낌이 잘 나타나요.

아프리카는 엄청 더우니까 빨간색으로 그렸을 것 같아요.

- 동물들이 원래 자기가 살던 서식지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정글은 나무가 다 잘려 나가고 없었어요.

사바나 들판은 들불이 번져서 다 타버렸어요.

극지방은 빙산이 녹아 없어지고 석유를 퍼 올리는 기계들이 세워졌어요.

아프리카의 강은 댐이 물을 막아서 다 말라버렸어요.

침엽수림 지대는 전나무가 없어지고 도시처럼 변했어요.

- 동물들의 서식지는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나요?

예)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 버려서요.

사람들이 살 곳을 만들려고 해서요.

도시를 만들고 발전을 시키려고 해서요.

- 동물들이 없어진 동물원과 관리인 잭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동물원을 나간 동물들의 발자국이 색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해와 구름이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진 동물들 어디로 갔나요?

예) 아주 아주 먼 섬으로 가서 서로 꼭 붙어 잠을 잤어요.

- 그 모습을 보게 된 동물원 관리인은 무슨 생각을 했나요?

예) 어떻게 하면 동물원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 수의사 잭은 잠든 동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예)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마지막 장면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예) 큰 배 위에서 동물들과 관리인, 수의사 잭이 함께 잠들었어요.

머리 위에 커다란 생각 풍선이 그려져 있고 무지개색으로 동물들의 서식지가 그려져 있어요.

- 마지막 장면에 그려진 그림은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예)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을 보니 다 같이 함께 산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생각 풍선이 하나로 되어있어서 모두가 함께 살고 싶은 곳이 생긴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 뒷 면지를 앞 면지와 비교해서 살펴봅시다. 무엇이 변했나요?

예) 앞 면지에서는 기린이 동물원 안에 갇혀 있었는데, 뒷 면지에는 잭이 동물들을 데리고 동물원을 나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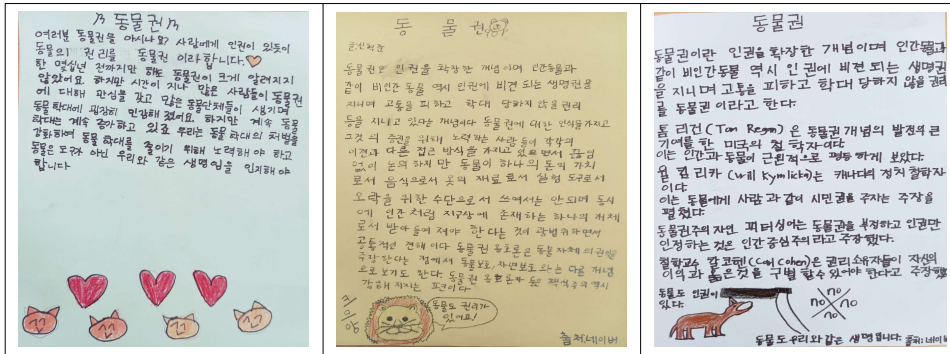
- 뒷 면지에 그려진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나요?  
예) 동물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떠나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곳으로 책이 데려다주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내일의 동물원으로 이사 가는 것 같아요.

## 읽은 후

### 1. 우리가 만드는 내일의 동물원

#### ■ 동물권 조사하기

- 여러분은 동물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 인권처럼 동물의 권리를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 동물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동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나 동물권을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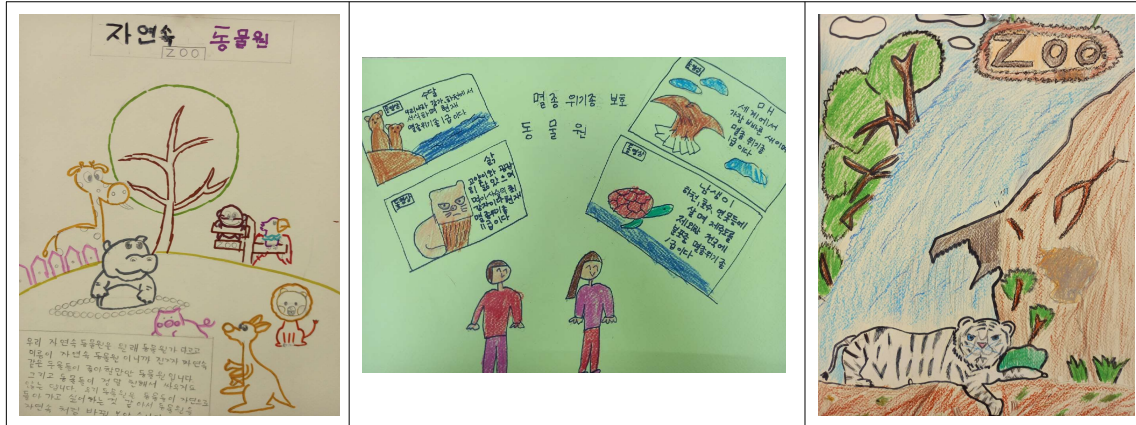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 내일의 동물원 소개하기

- 이야기 마지막 장면을 다시 살펴봅시다. 관리인과 수의사 책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예) 관리인은 어떻게 하면 동물원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생각했어요.  
수의사 책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여러분은 누구의 생각에 동의하나요?  
예) 저는 관리인처럼 동물원을 새롭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수의사 책처럼 동물들은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동물원 관리인의 입장으로 우리가 내일의 동물원을 만든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물원을 넓게 만들어야 해요.  
동물들이 철장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움직이며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동물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자연과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멸종 위기종 동물만 모아서 보호하는 동물원을 만들어요.
- 수의사 책의 입장으로 내일의 동물원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동물원을 없애고 동물들을 풀어줘야 할 것 같아요.  
동물들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자연 속으로 돌려보내야 해요.  
앞으로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잡지 않아야 해요.

-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일의 동물원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일의 동물원을 그림으로 그려 소개해봅시다.

예) 진짜 자연환경처럼 꾸며진 자연 속 동물원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하는 동물원  
동물원을 만들지 않고 동물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환경



- 여러분이 생각한 내일의 동물원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의 동물원이 실제로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예)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잘 알아야 해요.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할 것 같아요.  
동물원에 갔을 때 동물들이 불편한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바꾸도록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동물들이 멸종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해요.
-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내일의 동물원이 기대됩니다.  
동물과 사람이 모두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내일의 동물원을 만들어 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